

남원 천연물 바이오 산업 기술 교류

한미양행 등 3개 기관 업무협약
원료 공동 연구·기술 이전 등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남원시가 바이오산업 기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8일 남원시청에서 ㈜한미양행,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개 기관간 '천연물 바이오산업 기술 및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3개 기관이 ▲천연물 바이오 소재 원료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협력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곤충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투자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67년 설립된 한미양행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최근 건기식 제품 베트남 진출, 식용곤충의 표준화와 기능성 소재 및 메디푸드 개발 등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천연물 바이오 및 건기식 산업 육성, 바이오



지난 8일 남원시가 바이오산업 기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한미양행,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경식(가운데) 남원시장과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산업 연구개발 협력 강화는 물론 남원시 내 화장품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기술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남원시가 보유한

입지여건 및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바이오 관련 기업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약...1447명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에 이은 '상해보험 가입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보 보상을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비 2만원 중 정부와 군이 절반씩 지원한다.

앞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회복지 종

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신설(9000만원), 맞춤형서비스 생활지원사 교통비 인상(월 15만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700만원) 지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사회복지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보건기관 21억 투입 그린리모델링

고창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총 20억7600만원을 투입해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10월까지 고창군 덕산·금평·관동 등 보건진료소 6개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산·대산 보건진료소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다.

주로 건물 내·외부의 단열공사, 고효율창호 및 방난방기, 보일러 설치 등으로 보건기관 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체 생산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또 12개 보건진료소와 2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 보수가 필요한 관동보건진료소 등은 이번 리모델링 추진과 더불어 진행할 예정이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고창 내창보건진료소 전경.

을 통해 지역 보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업그레이드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 소·돼지 등 16종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25%는 시가 지원한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 총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읍의 한 축사.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

손해보험이나 일반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관 명칭 변경·변조 방지 기능 강화

정읍시가 특별자치도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전라북도 기재)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신분증 보안을 위한 위

변조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손주 정읍시 민원지적과장은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꼭 재발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서 토요일마다 즐기는 국악 나들이

국립민속국악원, 연말까지 15회

남원시 소재 국립민속국악원은 올해 '2024 토요일 국악 나들이'를 진행한다.

공연은 주말을 맞아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국악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연말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기악합주, 산조, 판소리, 민요, 민속춤, 사물놀이

이 등 다양한 공연으로 꾸러졌다.

16일 첫 공연에서는 '태평소와 관현악', '판소리 심청가', '부채춤', '액막이, 지경다짐', '삼도농악 가락'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